정부 유류세 인하 폭 축소…기름값 다시 오른다

내달 1일부터 인하율 5~7%p 조정
중동 정세 불안에 본격 오름세 전망
광주·전남지역 2주 연속 가격 인상
생계형 운전자들 "부담 가중" 토로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기름값이 본격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했지만 11월부터 인하율이 줄어드는 데다가 중동 정세에 따라 국제유가가 널뛰기하고 있어 주유소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탓이다. 이에 기름값 부담에 따른 생계형 운전자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

28일 정부의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국제 유가 및 물가 동향, 국가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율은 지난해 1월 이후 올해 6월까지 휘발유 25%·경유 37%를 유지했지만, 7월부터 10월까지는 휘발유 20%·경유 30%로 적용됐다. 올해 연말까지는 15%, 23%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1ℓ당 122원, 경유는 1ℓ당 133원, LPG 부탄은 11ℓ당 47원의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들면서 현재 휘발유 656원, 경유 407원, LPG 부탄 142원으로 부과되고 있는 유류세가 11월부터는 각각 698원, 448원, 156원으로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ℓ당 40원가량 오르게 된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이미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10월 20~26일) 기준 보통 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은 1572.47원으로, 전 주인 1565.78원과 비교해 6.69원 올랐다. 10월 둘째 주 1560.48원과 비교하면 11.99원 비싸지며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넷째 주 전남지역 보통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은 1599.32원으로, 전 주 1598.04원보다 1.28원 올랐다. 10월 둘째주 1595.89원과 비교하면 3.43원 상승했다.

경유 가격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넷째 주 광주지역 경유 평균판매가격은 1398.18원으로, 전 주인 1394.20원보다 3.98원 상승했다. 10월 둘째 주 1389.60원과 비교하면 8.58원 비싸졌다. 전남지역의 경우 10월 넷째 주 평균판매가격은 1428.84원으로 전주보다 0.36원 하락했다. 10월 둘째 주(1428.87원)와 셋째 주(1429.20원)를 비교하면 0.33원 올랐다.

이에 생계형 운전자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앞으로 기름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내년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거나 인하율이 더 축소되면 그 부담이 더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 류모(27)씨는 "요즘 기름값이 많이 안정된 것 같다고 생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며 "기름을 한 번 넣을 때마다 최소 5~7만원은 들어가는 것 같다. 개인적인 일 때문에 주말에 종종 광주와 대전을 왔다 갔다 하는데, 기름값이 인상되면 한 달에 유류비로 최소 5만원 이상은 더 지불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기름값 인상이 크게 와닿지 않지만, 택배 노동자에게 기름값 인상은 언제나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는 택배 노동자들은 기름값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며 "노동자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 60만원 이상이 유류비로 쓰인다.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기름값까지 인상되면 한 달 최소 10~20만원가량이 기름값으로 더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신세계, '가을산행' 아웃도어 선봬 광주신세계는 가을 산행을 나서는 고객들을 위해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아웃도어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11월 3일까지 본관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진행되며, 노스페이스·디스커버리·블랙야크·K2·아이더·네파·내셔널지오그래픽·컬럼비아 등 총 9개의 인기 브랜드가 참여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노스페이스 여성 방한 부츠, 여성 2000눕시 재킷, 블랙야크 남성 코모 재킷 등이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금호타이어 광주·곡성·평택공장,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ISO 50001' 인증 획득
탄소중립·환경경영 앞장

금호타이어는 국내 3개 공장(광주, 곡성, 평택)을 대상으로 ISO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ISO50001은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에너지경영시스템 표준 규격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해 에너지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는지를 평가한다. 기업이 인증을 취득한 뒤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심사가 매년 진행된다.

ISO 50001 인증을 획득하면 기업은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를 통해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관리 지표를 개발하고, 에너지 절감 및 효율 개선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다. 또 탄소·에너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금호타이어는 2045 탄소중립 로드맵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비투자 및 관리시스템 개선,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실시하고 있다. ISO50001 인증 획득을 위해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T.F.T'를 조직해 사내 내부심사원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육성함과 동시에 생산설비 현장에서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측정 및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소비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

금호타이어의 광주, 곡성, 평택 등 국내 3개 공장이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을 인증을 획득했다. 금호타이어 제공

김명선 생산기술총괄 부사장은 "금호타이어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실천의 지를 담아 지난해 환경경영 정책을 제정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탄소중립 및 환경경영에 대한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Your Sustainability Partner'라는 ESG경영의 비전 아래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는 금호타이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국제표준 인증을 추진하며 ESG경영 목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과제 수행을 하고 있다. 올해 초 금호타이어는 준법·윤리경영과 관련된 임직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ISO37301(규범준수 경영시스템)과 ISO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 통합인증을 획득했다. 박소영 기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5년간 납입…최대 34% 수익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28일 출시했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맞아 첫 가입자인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주 장관, IBK기업은행 김성태 행장과 직원들이 함께 출근길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상품안내장을 직접 전달하는 등 가두 홍보를 실시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 모아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수령한다. 최대 연 13.5%의 적금에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리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더해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받을 예정이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면 '기승전 인력'이라고 인력수급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협업은행의 우대금리 제공으로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5년 만기 상품으로 설계돼 장기재직 효과도 기대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어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재직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광주신세계, ESG평가 2년 연속 통합 'A등급'

사회부문 'A+' 등급 성과

광주신세계는 한국ESG기준원의 2024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통합 A(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ESG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상장사 및 대기업 집단 계열사 총 1066곳이다.

광주신세계는 광주지역 ESG 평가 대상인 상장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가장 높은 등급인 A 등급을 획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매우 우수)로 높은 등급을 받은 사회부문에서는 근로자 교육 및 협력사 지원프로그램 운영,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과 더불어 '사랑의 S-BOX', 장학재단 후원, 한국섬진흥원과 협업한 ESG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역사회 상생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분야는 환경보호를 위한 폐기물재활용 실천 강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지원, 친환경제품 사용 강화를 통해 A(우수)등급을 받았고, 이밖에 무등산 및 광주천변 플로깅 등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기업으로서 거듭나고자 노력했던 점을 인정받았다.

지배구조 역시 투명성을 바탕으로 A(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종합평가 결과 통합등급 'A'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광주신세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통합등급 'A'를 받으면서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펼친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광주신세계 이동훈 대표는 "ESG의 추구하는 방향인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며 "광주신세계가 ESG 선도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ESG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다운 기자

진일보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